

경상북도 의회소식

제 74호

열린의정구현 |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전화 (053)602-5113 전송 (053)602-5120 <http://council.gb.go.kr> 2013. 4.



제26회 임시회 본회의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이stanbul-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 지원결의
주민대표기관 명문화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경주에서 ‘이stanbul-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3월 6일 경북도의회 주관으로 경주 현대호텔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13년 제3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8월 경북도와 터키 이스탄불시가 공동주최하는 ‘이stanbul-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결의문 채택과 경상북도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의 주민대표기관 명문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관련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건의문’ 채택, ‘지방분권 실현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공동성명서’ 채택,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연장 관련 건의문’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전국 시·도의회 17개 의장은 이stanbul-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결의문을 통해, 엑스포는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고대문명의 요람이자 동서문화의 융광로

인 터키 이stanbul에서 정부지원 국제행사로 개최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아시아를 넘어 유럽 시장에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범국민들의 동참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행사의 일환으로, 실�크로드 종착지가 중국 시안이나 한반도였다는 흔적을 찾아 실�크로드 동쪽 기점을 경주까지 연장하는 ‘대한민국(경상북도)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역사성에 공감하며 이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이번 엑스포를 통해, 지역 문화가 한류 세계화의 시발점이자 중심이라는 것을 재인식하고 지역문화 계승 발전과 한류 세계화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리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의정단신 송필각 의장, 포항 용흥동 산불피해지역 현장방문



송필각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3월 10일 오전 장두옥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과 장경식 의원(포항), 이태안 의회사무처장 등과 함께 산불피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포항시 북구 용흥동 일대 현장을 긴급 방문했다.

이날 대흥초등학교 산불지휘 본부와 포항 학산복지관 피해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위로 격려하고, 신속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피해주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다해 줄 것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해 주고, 경북도내 산불 예방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관계관에게 당부했다.

제74호 지면안내	
의정소식 / 의정만평	2~3면
의정구상	4~5면
송필각 경상북도의회 의장 박성만 부의장 / 한해원 부의장	
특별기고	6면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경상북도의회에 바란다 홍덕률 대구대학교 총장	
상임위원장 인터뷰 시리즈	7면
의회운영위원장 박병훈 기획경제위원장 박진현	
상임위원회 운영방향	8~14면
의회운영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 행정안전복지위원회 / 문화환경위원회 / 농수산위원회 / 건설소방위원회 / 교육위원회	
도정질문	15면
곽광섭 의원 / 김희원 의원 / 박태환 의원 고우현 의원 / 김명호 의원 / 황이주 의원	

“日, 고등학교 왜곡 교과서 즉각 폐기하라”성명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과 왜곡 교과서 폐기 촉구



기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송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과오를 은폐하고 이를 포장하여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하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개탄하고, “이는 일본이 아직도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은커녕 시대착오적인 영토 확장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송 의장은 “일본은 이제라도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미래 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며 진지한 반성과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필각은 26일 오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와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 왜곡에 대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고, 왜곡된 교과서를 즉각 폐

의정만평



경상북도 의회소식

발행인 | 송 필 각 기획·편집 | 임현성, 남정해
편집인 | 이태안 발행처 | 경상북도의회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Tel. 053-602-5113 Fax 053-602-5120

2013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

‘신도청시대 경북발전과제와 의정활동’ 열띤 토론 펼쳐

경상북도의회는 2월 1일 도의회 제2별관 세미나실에서 송필갑 경상북도의회 의장 등 60여 명의 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장세현 의원) 주관으로 ‘신도청시대 경북의 발전과제와 의정활동 방향’을 주제로 입법정책 워크숍을 열고 18대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경북의 새천년을 열어갈 신도청시대를 맞아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의회역할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워크숍은 도청 이전에 따른 경북도내의 지역간 위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북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을 위해 도의회가 앞장서서 지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



자연공원생태연구회, 팔공산 가치와 국립공원 승격 정책토론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연공원생태연구회(대표 서정숙 의원)는 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장세현 위원장과 대구시의회 정순천 의원, 외부전문

가, 대구시와 경북도,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월 27일 칠곡군에서 ‘팔공산의 가치와 국립공원 승격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팔공산의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한 활발한 정책토론을 펼쳤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17일 광주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 사례 연구 세미나에 이어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두 번째로 개최된 세미나로, 홍진규(군위)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홍종흙 팔공산보호단체협의회 회장, 정순천 대구시의회 의원, 서상곤 영남대학교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토론에 나섰다. ☞

균형발전연구회, 혁신도시와 도청이전 신도시 활성화 세미나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균형발전연구회(대표 박진현 의원)는 3월 11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광주전남공동(빛가람) 혁신도시를 방문, 전남발전연구원 이진철 원장과 도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고 ‘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세미나는 현재 기반시설을 마무리하고 주요 공기업의 이전을 서두르고 있는 김천혁신도시와 신성장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개발중인 도청이전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이 경북의 지역발전에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 것으로 의미가 크다. ☞

로 의미가 크다. ☞



사회안전망연구회, 성폭력 예방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사회안전망연구회(대표 박기진 의원)는 도의원, 도여성정책관실 관계

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일 성주군에서 ‘성폭력 예방과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성폭력으로부터 미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한 활발한 정책토론을 펼쳤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질병, 노령, 실업, 빈곤 그리고 폭력 등 다양한 사회적 위협 가운데 오늘날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성폭력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경북·대구시의회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경북·대구 상생발전 위한 업무협약체결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 3월 13일(수) 오전 11시에 대구광역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경북·대구 상생발전을 위한 도·시의회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북·대구의 지역발전과 현안사항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 및 공동방안 마련 등 상호 긴밀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 도·시의회에서는 경북·대구의 상호협력으로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18일, 시의회는 9월 20일 나란히 7명씩으로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도의회는 지난 1월 23일,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3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등 의욕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

현장체험 실무수습 접목한 우수한 법조인 양성

경상북도의회 ↔ 영남대학교 상호협력 협약 체결

경북도의회(의장 송필갑)와 영남대학교(총장 노석균)는 3월 26일 도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의회 의장단과 영남대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법률문화 발전과 우수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도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에게 도의회 각부서 현장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은 도의회의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자문과 법률전문성 위탁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양기관은 도내 법률취약 계층 이 법률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법률 봉사활동 개발과 봉사활동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도 공동노력 하기로 했다.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의정운영 !



송 필 각 경상북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이렇게 지면으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새봄의 정취를 더해가는 4월을 맞이하여 우리 도의회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기존의 의정활동지를 신문형태의 타블로이드로 발간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소상히 도민들에게 알리고 또한 우리 도민들의 도의정에 대한 정책제언 등도 게재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소식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9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가 지난해 7월 힘차게 출범하여 전체 동료 도의원이 정치력을 발휘하여 각자가 새로운 각오와 더 낮은 자세로 나보다는 우리, 과거보다는 미래, 지역보다는 전체를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막힌 곳을 뚫고 현장위주의 의정 활동을 추진한지 10개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모두는 힘을 하나로 모아 의정활동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제18대 박근혜 새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에서도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우리 도민의 숙원과제 등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 지방과 국가가 함께 발전하는 시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기위해 우리 모두는 근검, 절약하여 국가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서로 돕는 옛 미덕의 풍토가 확산되어 우리나라가 튼튼한 바탕위에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으로 도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의정활동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통중심의 의회 운영으로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며, 각의원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도민의 봉사자로서 직접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의회 현안업무 해결을 위해 심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심의의결을 위해 회기일수를 연장하여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시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운영과 집행부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성 확보와 문제 해결을 위한 실명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입법정책의 전문화와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입법정책 기능의 연구인력 보강으로 의원의 효율적인 입법지원 활동과 체계적인 연구 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의회가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의회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전체 도의원은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 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푸르름이 더해가는 희망찬 계절과 함께 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지방자치 성공 위한 경북도의회 역량강화해야

박 성 만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지난 1991년 지방의회의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어느새 20여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취약한 재정분권, 중앙정부의 강한 권한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권한도 자치입법권을 제외하면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 등 대부분의 권한이 집행부 위주여서 지방의회는 사실 이름만 주민의 대표기관에 지나지 않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정착, 경북의 발전 그리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경상북도의원들의 의정활동 강화는 필연적입니다.

첫째,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고 단체장의 의회와 함께하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을 적절히 조화시켜나가야 합니다. 서로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정확하고 엄격한 견제와 감시가 집행부의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도의회의 정책기능을 보다 확대해야 합니다. 의회 스스로 끊임없이 정책아이디어와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집행부에 제시하거나 필요하다면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임위원회별 연찬회,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도의원들의 의정보좌기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의회 인사권독립이나 보좌관제도 도입과는 관계없이 도의회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보좌할 수 있는 전문인력 기능확대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분야의 외부전문가 등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넷째, 도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의 생활속으로 뛰어드는 현장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아프고 가려운 곳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바로 서야 비로소 올바른 지방자치가 가능하다고 볼 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에 관한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는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기간은 지방의회의 발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

300만 도민 믿음·신뢰주고 복리증진에 역점

한 혜 련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 경북도의회는 물론 도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와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300만 경북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는 의정활동을 지향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그간의 업적과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경북도의회는 그동안 상임위원회의 활성화에 역점을 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경북도정을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과 더불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의원발의 조례나 도정질문, 5분발언 등을 통해 예년과는 달리 수준높은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음에 높은 자긍심을 가집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우리 경북도의회는 항상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민의 진정한 뜻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봉사와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고 집행부와는 상생과 협력을 모색하되 제대로 견제하고 합리적인 입법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진정한 도민의 의회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특히 경북도의회 출범 20년을 넘긴 시점에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새로이 규정해야 할 시기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도청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우리 도의회의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가 경북도민의 뜻과 기대에 보다

부응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체계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회가 의회본연의 책임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북도의회만의 색깔과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연찬과 자기계발 노력은 물론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고 전문인력 확대를 통한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의 출범을 맞아 경북도의회도 이제 정말 역동적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변화의 새바람이 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초심을 가져야 하는 것과 같이 그 변화의 새바람도 진정한 도민의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경북도의회가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고 300만 도민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나갑시다. 🍎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경상북도의회에 바란다

홍 덕 룰 대구대학교 총장

이제 제9대 경상북도의회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의 일상적인 역할과 업무 외 이 시기에 꼭 집중해야 할 중점 과제가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도민의 삶을 보살피는 일상적인 의정 활동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 중점 정책 과제를 설정해 그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중앙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세워 힘있게 추진하는 일입니다. 권력과 돈과 인재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비수도권 지역은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소외와 배제, 차별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국가 발전도 발목잡힐 지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국의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들, 그리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산업계, 문화예술계, 학계가 강력하게 연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일에 경상북도 의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

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단순히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차원을 넘어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분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위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국가패러다임의 새 지평을 경상북도 의회가 열어주길 기대합니다.

둘째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시책인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도 경상북도 의회가 선구적인 역할을 해 주길 바랍니다.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특히 민간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빠른 산업화를 이끌었던 노동집약형의 소품종 대량생산 패러다임과 모방경제 모델, 관치 경제체제에 의지해서는 미래 지식정보화시대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특히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창조적 인재와 대학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대학은 창조와 혁신역량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대학들이 지역 기업과 시민사회에 창조와 혁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창조 기지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자각하고 견인하며 뒷받침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적극 유도하고 있는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도 실은 경상

북도가 적극 나서서 시행해야 할 새 시대의 지역 발전 패러다임인 것입니다. 창조적 인재들이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이끌어 가는 창조도시로 거듭나도록, 경상북도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 주기를 기대합니다.

셋째는 역시 새 정부의 주요 시책이기도 한 '국민행복시대'를 경상북도가 앞장서 열어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고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행복시대는 경상북도가 이끌어 간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행복 증진 프로그램을 선구적으로 개발하며 시행해 가야 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여 외지인들, 특히 외지의 기업과 창조적 엘리트들, 나아가 열정과 도전정신, 실험정신이 충만해 있는 청년들까지 경상북도를 찾고 경상북도에서 정착하고 싶어 하도록 중장기 계획을 갖고 하나 하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국민행복시대 개척'이라고 하는 세 주제가 제9대 경상북도 의회의 후반기 핵심 화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안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고, 밖으로는 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열어주는 선구자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길 기원합니다. 🏠



경상북도의회 전경

위원장 인터뷰 시리즈

집중 인터뷰

다양한 스펙트럼을
열정으로
풀어낸다

박병훈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박병훈 도의원(경주시1)은 뜨거운 열정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만큼 폭넓고 깊이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동료의원들은 물론 지역구 주민들에게 정평이 나있다. 특히 의회의 살림살이를 맡아보는 운영위원장에 선출되고 난 이후부터는 무죄로 만든 사람과 같이 경주와 대구에 위치한 의회까지 하루에도 두 세번씩 왔다 갔다하는 날이 허다할 정도로 더 바빠졌다.

그러면서도 의원 본연의 권리이자 의무인 조례입법을 쉬지않고 발의하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깊이 있는 다양한 의정활동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큰 화제이다. 지난해 경북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과 기반마련 등을 위한 '경상북도 관광진흥조례',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을 발의한데 이어 올해 첫 임시회에서 도민의 독서문화향상과 지역공동체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늘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제9대 경상북도의회 제1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재임시에는 그동안의 관행들을 탈피한 창의성과

예·결산의 문제점들을 과감하면서 공정하게 처리한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때문에 동료예결위원들이 이례적으로 임기가 끝나는 박위원장에게 공로패를 만들어 전달하기도 했다.

새로운 시각에서 혁신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은 운영위원장에 당선되면서 '후반기 의정방향을 민주적 소통문화 구축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의회운영위원들과 함께 후반기 의회 운영방향을 같이 점검하고 논의하는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는가 하면 의회운영권한을 상임위로 대폭 이전, 민주적인 의회운영의 전환점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의 처리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미흡한 점을 없애고 처리결과에 대한 분석관리가 가능하도록 책임실명제를 도입하여 행정사무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제고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한 상임위원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을 실시할 시 분야별전문가를 위촉하여 각종심사의 내실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같은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박병훈 도의원은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재선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음은 전적으로 경주시민은 물론 선배·동료의원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강조한다. 앞으로도 경북발전과 도민복지를 위해 도민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

농·어민과 중소기업
위해 어디든지
뛰어간다

박진현

영덕출신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겸 균형발전연구회 대표인 박진현 도의원은 강한 체력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경북도와 영덕군의 발전을 위해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는 등 도민과 군민을 위해 1분 1초를 아끼워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의회 제8대 도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경상북도의 기획예산과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도의 핵심부서를 담당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제9대에서는 기획경제위원장을 맡아 경북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동남권선공항유치추진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및 도청이 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경북도민의 숙원이었던 도청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슈퍼맨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난제를 풀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서민과 중소기업, 농·어업인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듣고 해결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 대형마트와 SSM(super super market, 기업형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도내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몰락하고 고통 받고 있을 때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하는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

료위원회와 공동 발의하였고, 임시회나 정례회 회기 시에는 한번 이상 반드시 전통시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로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농·어가의 소득이 다른 도에 비해 저조한 실태를 지적하면서 경북도의 농·어업 선진화계획에 따른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예산이 턱없이 적다며 농·어가의 부채 감소와 소득 증대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작년에는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여 각 대선주자에 전달하고 공감대를 얻어 새로운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없어졌던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는 개가를 올렸다.

또한 제261회 임시회에서 공중보건의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농촌지역의 응급환자 대책을 위한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박위원장은 지역인재 양성과 청소년 보호·육성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관내 영해·창수면 소재 5개교(고 2개교, 중 3개교)를 통폐합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고, 통폐합에 따른 불편해소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 현대식 교사(敎舍) 신축 등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

의회운영위원회

※ 정당명 : 새누리당(새), 민주통합당(민), 무소속(무)



박병훈
의회운영위원장(새) 경주시 1

의회운영위원회

도민이 행복한 세상, 경북도의회가 만들어 간다

의원연구활동 지원, 전문성 · 연구기능 강화

경북도의회는 올해 도민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의정활동 전개와 도의원의 전문성,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300만 도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것이 올해의 의정 목표다.

제9대 경북도의회는 하반기 2년차를 맞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이번 경북도의회가 도민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의정활동의 정책을 살펴보면 첫째로 의원 연구활동 활성화에 나선다.

자발적인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위해 균형발전 연구회, 사회안전망 연구회, 임업발전 연구회, 자연공원 생태 연구회 등 4개 연구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경북도의회는 의원들의 연구활동 지원과 더불어 연구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반영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단체에 대한 시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로 의원 입법활동 전문성 제고에 나선다.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에 전문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구회의 의정연수원,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연수원 등 전문교육 기관의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또 의회사무처에 석·박사급 전문직을 보강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문적 지원활동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셋째로 상임위별 특수시책을 개발해 경북도의회의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상임위별로 현장방문과 실태파악을 정확히 도정에 제시할 계획이다.

넷째로 경북·대구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나서며 지난해 대구시와 함께 체결한 지역발전 상생협의회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경북도의회는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제9대 경북도의회 하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법정위원회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문화·환경, 농수산·건설소방 등 6개의 상임위원회 등을 구성했다.

또 지역사회의 현안사항을 신속하고 밀도있게 처리하기 위해 독도수호, 도청이전 지원, 경북 대구 상생발전 등 5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제26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처리안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희수 부위원장(새) 포항시 2



강영석 위원(새) 상주시 2



구자근 위원(새) 구미시 3



김말분 위원(새) 비례대표



김영식 위원(새) 경산시 1



김종천 위원(새) 영주시 1



김창숙 위원(민) 비례대표



도기욱 위원(새) 예천군 1



배수향 위원(새) 김천시 2



이태식 위원(새) 구미시 1



장영석 위원(새) 구미시 4



정영길 위원(새) 성주군 1



추재천 위원
교육의원 3



홍진규 위원(새) 군위군

제26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 합동 연찬회

박병훈 의회운영위원장은 2월 13일 '롯데호텔제주'에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역설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화의 추진이 미흡한 가운데 경북도의회는 300만 경북도민의 대표기관인 동

시에, 전국 시·도의회 중에서 경기도(131명), 서울시의회(114명) 다음으로 의원수가 많은 광역의회로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경북도의회가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및 분권화 추진과정상 정책적 노력을 선도적으로 앞서 나감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자 했다.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 합동 연찬회

기획경제위원회

※ 정당명 : 새누리당(새), 민주통합당(민), 무소속(무)



박진현

기획경제위원장(새) 영덕군 2

기획경제위원회

서민 얼굴에 웃음꽃 피는
경북 만들기에 최선

일자리 창출 ·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경북도의회가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힘을 쏟는 가운데 기획경제위원회는 ‘웃음꽃 피는 서민경제’를 목표로 2013년 상임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박진현 위원장(영덕)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내 · 외 경제 위기가 계속 되고 있어 서민의 삶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경북도의 경제를 담당하는 기획경제위원회는 서민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경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위원회는 이에 따라 우선 집행부와 협력의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키로 했다.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선행돼야 서민경제가 안정된다는 생각 속에서 집행부와 함께 일자리 만들기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공동 노력키로 했다.

또 경북도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형 구획사업 및 민간기업의 투자유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연구, 노력하는 위원회의 자세를 정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선진지 벤치마킹, 다양한 연구활동, 전문가 의견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유지하고 도민이 행복한 부자 경북을 만드는 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 아래 현장 의정활동을 강화해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키로 했다.

전통시장, 중소기업 등 현장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정을 설명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간 협력과 견제의 상생 의정을 펴기로 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올해 첫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동문시장을 방문해 시장 활성화 시책을 확인했다. 이어 구도해양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방문해 첨단과학단지 및 의료관광단지 조성, 국제영어 교육도시 건설 등 미래성장먹거리 산업 육성 현황과 투자유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도정에 접목키로 했다. 🏠

제26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처리안건

-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항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 중국 섬서성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도기욱 부위원장(새)
예천군 1김말분 위원(새)
비례대표김봉교 위원(새)
구미시 6김세호 위원(새)
비례대표김영기 위원(새)
청송군김영식 위원(새)
경산시 1김종천 위원(새)
영주시 1김하수 위원(무)
청도군 1김희수 위원(새)
포항시 2장세현 위원(새)
포항시 4

제26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벤치마킹 위해 전국을 누비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제2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3월 13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항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중국 섬서성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 토론하고 심의하여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 인천 송도에 소재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가 운영하는 김포 아라마리나, 당진해양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삼교호 함상공원, 작년 말에 이전한 충

청남도청과 충청남도의회를 방문하여 선진 개발전략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견학하며 벤치마킹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 신영시장에서는 상인회장의 시장 발전계획을 청취하고 상인친절교육에 대한 효과와 고객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구청의 시장 현대화 전략 등에 대하여 질문하는 등 적극적인 토론이 있었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UN 산하기구인 GCF(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후 투자유치현황과 개발 속도 변화 및 개발전략에 대하여 질문하고 우리 도에 접목할 전략에 대하여 토의했다. 🏠



우수전통시장인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 현장 견학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정당명 : 새누리당(새), 민주통합당(민), 무소속(무)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장(새) 포항시 6



이태식 부위원장(새)
구미시 1



고우현 위원(새)
문경시 2



김창숙 위원(민)
비례대표



이경임 위원(무)
비례대표



이상용 위원(새)
영양군



한혜련 위원(새)
영천시 1



황이주 위원(새)
울진군 2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희망복지지원단 · 경북행복재단 등 '컨트롤타워' 활용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과 계층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9대 도의회 후반기 2년차를 맞아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중점 추진사항으로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투명한 복지 전달체계 구축, 여성친화환경 조성 지원,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 지원, 육아부담 경감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저출산 문제 극복 출산장려분위기 확산, 재난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 맞춤형 복지서비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지역 맞춤형 모델개발 및 통합사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경북행복재단'을 통해 경북 맞춤형 복지정책 연구, 사회복지시설 컨설팅을 지원하고 현장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무원들로 구성된 '복지돌이 가동팀', 집배원들을 활용한 '행복나르미'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전용카드제 시행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복, 누락을 방지하는 등 투명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여성친화환경 조성도 역점사업으로 추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포항시와 영주시 외에도 기타 시군의 추가 지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여성친화환경 조성 및 여성교류·활동의 중심점이 될 복합시설인 '경북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여성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직업훈련,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통해 구직 여성 및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힘을 쏟는다. 🏠

제261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처리안건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61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활동

민생속 현장 복지로 '도민 행복도' 높인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회기중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와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도민복지증대와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활발한 상임위 활동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이번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장기 등의 기증 문화가 활성화되고,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나눔'과 '배려'의 새로운 새마을운동을 구내·외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복지시설 현지 방문을 갖고 모범 복지시설 운영 사례로 꼽히고 있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인 거제 '애광원'을 방문하여 교육재활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재활시설 등을 둘러보고 운영 예산 등을 파악하여 우리도의 프로그램 도입 등을 검토해 보는 자리가 되었다.

이어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민간위탁 운영과정에 대해 질문하고, 사업현황 설명과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미사용 펜과, 노트, 학용품 등을 모아서 수단의 친구들에게 보내는 '수단펜보내기캠페인(Give me a pen)' 사업 등 사례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가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시기에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체감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민생현장속에 파고들어 도민이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솔선해서 지원해 주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상남도 거제 '애광원' 방문 사업현황 청취

문화환경위원회

※ 정당명 : 새누리당(새), 민주통합당(민), 무소속(무)



전찬걸

문화환경위원장(새) 울진군 1

문화환경위원회

문화·역사·관광 '세계화' 주력

고품격 문화향유, 경주엑스포 '세계 축제'로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걸)는 도민들의 품격높은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쾌적한 생태·문화·휴양 자원 조성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 구성된 9대 후반기 문화환경위는 전통문화의 보고이자 한국의 정체성이 가장 잘 보존된 천혜의 관광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21세기 현대 문화시대에 맞게 디자인해 경북문화의 세계화에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면밀히 살피고, 강·산·바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은 물 공급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는 8월말,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2013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을 이끌어 동서양의 문화 실크로드와 연결된 고품격의 경북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구촌 문화와 화합의 대축제로 격상시키는데 최대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해 발족한 '경북도관광공사'와 '경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을 발판으로, 경북의 관광·문화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인 MICE산업과 콘텐츠산업으로 키워 경북만의 특징과 이야기를 담은 '복합창조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분야별로 체계적인 접근을 해 나가는 한편, '3대 문화권 사업'을 권역별 전통문화와 연계된 '한반도 역사문화 산업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지역의 문화관광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5 세계 물포럼의 성공 개최 기반 구축 △물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멤브레인 TOP 기업 유치 △백두대간·낙동강맥 건강 휴양단지 조성 △산채클러스터 조성 △마리나 항만 개발 △스킨스쿠버 리조트 조성 △울릉도·독도 세계지질공원 추진 등 당면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에 대해 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밀도있는 점검 및 확인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전찬걸 문화환경위원장은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경북만들기에 도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한편, 밀도있는 행정사무감사, 사업의 선택과 집중 및 도내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예산안 심사 등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261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처리안건

-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수향 부위원장(새)
김천시 2김기홍 위원(새)
영덕군 1김명호 위원(새)
안동시 2박권현 위원(새)
청도군 2박기진 위원(새)
성주군 2박명훈 위원(새)
경주시 1서정숙 위원(새)
비례대표심정규 위원(새)
비례대표이상효 위원(새)
경주시 2장경식 위원(새)
포항시 5

제261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활동

문화관광해설인력 양성, 경북알리미 역할

문화환경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활동기간 중인 13일과 14일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을 비롯해 문화관광해설사회 임원진과의 간담회 개최, 2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현안사항 보고회에서 관계부서로부터 경북관광공사와 도내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바우처 사업 등에 대한 운영실태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불과 (주)구미케미칼염소가스 누출사고 경위와 수습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업추진 부진과 각종 사고예방 시스템의 문제점을 따지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3일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역량을 높이고 근무

여건과 처우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영일만항의 지속적인 물동량 확보를 위해 '항로연장지원금'의 지원 기간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15일에는 친환경 산업시설인 포스코 환경감시센터 견학을 비롯해 경상북도(산립환경연구원)와 포스텍이 공동 수행중인 임산물의 약리작용 등의 연구개발 현장인 포스텍을 방문해 연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방기술원 조성 현장 방문 등 포항 일원에서 주요사업장 현지 활동을 펼쳤다. 🍀



임산비섯이용 대사성질한 신약 후보물질 개발연구 현장인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를 찾아 연구 추진실태를 점검

농수산위원회

※ 정당명 : 새누리당(새), 민주통합당(민), 무소속(무)



정상진
농수산위원장(새) 예천군 2

농수산위원회

살기좋은 경북 농어촌 건설

경북형 마을영농사업,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상진)는 올해 농어촌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구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 농어업 개방화 시대에 적극 대응, '살기좋은 경북 농어촌 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펼친다는 각오다.

농수산위는 지난해 8월 17일 1박2일 일정으로 예천군 어울마을에서 농수산위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농업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농어업, 농어촌 발전방안'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마련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올해 초에도 도의회 농수산위원들과 집행부 농어업관련 전 부서 직원들이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대응방안과 경북농어업의 활로 모색을 위한 '신년 소통 간담회'를 갖고 2013년 경북 농어업 발전 방향의 틀을 설정함과 동시에 다양하고 특색 있는 의견을 도정에 접목시킨 바 있다.

농수산위는 집행부와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경영혁신을 위한 '경북형 마을영농' 추진과 단계별 마을·지역별 공동 소득원 발굴 사업을 지원,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농·고령농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도·농 상생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단계별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영혁신 시스템 혁신을 위한 경북형 마을영농 시범 사업을 3개소에서 진행하고 금리 1%의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지원 500억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 11개소 등을 추진한다.

FTA 극복을 위해 경북도가 개발한 '짚다' 팔기의 보급, 수출 확대를 비롯해 기후 환경변화와 종자 로열티에 대응한 다양한 신품종을 육성하고 곡물 자급기반 조성, 친환경 먹거리 공급 기반 구축 등 농가소득 작목 발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추진, 74개권역에 681억원을 투입하고 송아지 안정제 사업 7만 7천두에 77억원,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 21억원, 양질의 친환경 조사료 확대지원 366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



정영길 부위원장(새) 성주군 1



강영석 위원(새) 상주시 2



곽광섭 위원(새) 고령군



권영만 위원(새) 봉화군



나기보 위원(새) 김천시 1



나현아 위원(새) 의성군 2



변우정 위원(새) 구미시 5



이정호 위원(새) 포항시 7



최학철 위원(새) 경주시 3



한창화 위원(새) 포항시 1

제261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활동

농수산위 현장방문으로 FTA파고를 넘는다

농수산위원회는 3월 19일부터 20일, 1박2일 일정으로 계란 가공공장인 영주 농업회사법인 '들풀'과 울진 민물고기연구센터와 엑스포공원 내 농어촌테마파크 조성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계란 가공공장인 들풀에서 작업현황과 가공과정, 회사현황을 설명들은 후 계란 선별시스템 및 액란가공 시설들을 둘러보고 현장 종업원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민물고기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내년 10월 준공예정인 토속어류 산업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핵심전략사업, 운영수익 제고방안에 대해 묻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원개발, 지역경제 활

성화, 경북이 내수면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울진 근남면에 소재한 엑스포공원 내 수산지구 농어촌 테마공원을 찾아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과 경북 동해안 천혜의 자연시설을 잘 활용해 관광객유치에 힘쓸 것을 요청했다.

정상진 농수산위원장은 FTA 체결이후 도내 농·축산업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농업인은 새로운 경영마인드와 마케팅 전략으로 이를 극복하고, 민물고기연구센터 등에서는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어종개발보급 및 연구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



영주 농업회사법인 '들풀'을 방문하여 계란 생산시설 현장 견학

제261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활동상황

• 친환경 무상학교 급식 소위원회 개최

건설소방위원회

※ 정당명 : 새누리당(새), 민주통합당(민), 무소속(무)



장두욱

건설소방위원장(새) 포항시 3

건설소방위원회

사통팔달 SOC망 구축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화학사고 특수구조단 신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는 경북의 '새로운 700년 비상'을 준비하는 사통팔달 SOC망 구축, '새천년 신도시시대'를 여는 도청이전 명품신도시 조성 등을 올해 현안으로 설정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또 새정부 출범에 부응해 구도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로 도민 기대감을 충족하고, 경제대동맥의 발판이 되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중점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장두욱 위원장(포항)은 "생활속에 필요하고 살아있는 SOC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조기 추진되도록 집행부와 손잡고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광역SOC망 확충으로 백년을 내다보는 경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사통팔달 이어지는 초광역도로망 △친환경녹색 철도망 구축 △지역균형개발 및 명품혁신도시 건설 △선제적 치수관리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 등 산적한 과제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대안 마련 및 사업추진의 애로사항 등을 풀어가면서 맞춤형 지역개발, 도민이 행복한 경북실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미래경북의 '새천년 신도시시대'를 여는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을 위해 도청 신청사 건립, 유관기관단체 이전,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거·학교·병원 등 정주기반시설을 조기에 갖추도록 밀도있는 점검과 현장확인을 통해 '녹색명품 행정중심 복합형 자족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그리고, 최근의 급격한 지구환경변화에 의한 대형 자연재해 및 지난해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등 인적재난 발생빈도 증가에 따라 119특수구조단을 신설해 화학·원자력 등 대형·특수재난 대처와 예방위주의 안전정책 추진으로 도민을 보호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해 7백리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통해 가뭄극복, 홍수예방, 수질개선 등의 녹색인프라를 구축해 '신낙동강시대'를 열어가는데 의회 차원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장두욱 위원장은 "도민들의 요구가 절실한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키위해 현장 확인에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현장행정 중요성을 강조했다. 🏠

제26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처리안건

•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홍진규 부위원장(새)
군위군김희원 위원(무)
칠곡군 2윤성규 위원(새)
경산시 3윤창욱 위원(새)
구미시 2이시하 위원(새)
문경시 1이영식 위원(새)
안동시 1이왕식 위원(새)
의성군 1이용진 위원(새)
울릉군장영석 위원(새)
구미시 4한재석 위원(새)
성주시 1

제26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활동

전문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적극 나선다

건설소방위원회는 3월 18일에 대한 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회장 정운길) 회의실에서 지역 전문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고 오후에는 도의회 전정에서 개최된 소방이동 안전체험차량 시연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조례개정'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50%→70% 이상 향상,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장두욱 건설소방위원장은 "건설경기

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구 간부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지게 된 것이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당장에 협회의 모든 요구사항들이 관철될 수는 없겠지만 관련제도나 법규 등을 개정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와 도차원에서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전문건설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에는 건설소방위원들은 도의회 전정에서 개최된 '이동안전체험차량 시연회'에 참석하여 이동안전체험 차량 소개와 도청어린이집 원생들과 함께 차량 내 소방안전체험했다. 🏠



지역 전문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교육위원회

※ 정당명 : 새누리당(새), 민주통합당(민), 무소속(무)



김수용
교육위원장(새) 영천시 2

교육위원회

안전한 학교·바른 인성 함양

교육관계자 의견 정책 반영,
행정감사 사실관계 공개키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올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학생들의 인성과 도덕성 함양'에 중점을 두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함께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는 학교현장에는 학생자살이나 학업중단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비롯해 교권침해와 학생인권 문제,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 학교무상급식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문제, 비정규직 해소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학교폭력 해소와 학생 인성교육 강화가 대한민국 교육의 최우선 현안 과제라는 설문응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두 과제의 해결이 경북교육청의 '명품교육'과 나아가 새 정부의 교육분야 공약인 '행복교육'의 밑거름이라는 판단 아래 올해 교육위원회 중점추진사항으로 삼아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위원회는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해법도 찾는다는 각오로 폭력 피해학생과 학부모, 봉사동아리 대표, 체육지도자, 진로지도교사, 학교장, 상담사, 행정실장, 조리사 등 구체적인 세분화된 교육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교육정책에 반영하며, 갈등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할 계획이다.

이어 도교육청과의 동반자적 관계에서 견제와 함께 지원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4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점을 높이 사고 올해도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조성, 고교 졸업생 일자리 창출 등 '명품 경북교육'을 꾸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예산의 심의·의결,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조례의 제·개정 등 지방의회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끝까지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는 교육 부조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자를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켜 모든 도민에게 사실관계를 공개키로 했다. 🏠

제2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처리안건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구자근 부위원장(새)
구미시 3



김원석 위원
교육의원 1



박성만 위원(무)
영주시 2



박태환 위원
교육의원 5



이 달 위원(새)
경주시 4



최우섭 위원
교육의원 2



추재천 위원
교육의원 3



홍광중 위원
교육의원 4

제2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활동

학교폭력예방에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교육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 기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긴급업무보고를 받는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3월 14일 열린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을 건디다 못해 숨진 모 고등학교 학생 사건과 관련한 긴급업무보고를 받고 집행부를 강도 높게 질타하였다. 특히, 위원들은 학교와 선생님, 상담교사, 학교지킴이 그리고 117 신고전화 조차도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면서 교장·교감의 학교순찰 강화를 비롯해 생명존중 일깨우기, 학생상담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3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특수학교 건립지역인 경산과 경주(글로벌예절체험관)와 울진(평해공고)을 잇따라 방문하였다. 첫 방문지인 경산자인

학교에서는 공사 상황을 보고 받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계획, 교직원 채용, 부설시공 방지 등 개교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경주의 글로벌예절체험관에서는 인성강화에 힘써줄 것과, 원자력 마이스트고로 다시 태어난 평해공고에서는 교직원들에게 청의와 인성을 겸비한 최고의 원자력 기술인재를 육성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교육위원들은 현장에서 우리 사회를 학벌위주에서 능력위주로 바뀌어나가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교육철학이 교육현장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관계자 모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3월 18일 교육위원회는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경산의 특수학교 건립시설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



특수학교인 경산자인학교 공사현장 점검

강정고령보 우측교 차량통행 관련

곽광섭 의원 (고령, 새누리)

문 강정고령보 우측교 차량통행에 대한 도의 입장, 그간의 노력, 해결대책, 현재까지 차량통행이 불가한 이유와 도의 전담부서 및 보 관리기관, 경북도 주도하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견해

답 보 관리용 공도교이며, 수질오염 우려, 방문객 및 개통시 차량운전자의 사고위험 때문에 일반차량통행 불가함.

우리 도에서는 건설도시방재구 치수방재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보 관리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경북권 물관리센터)임.

우리 도에서는 장기적으로 대구시와 고령군 양 지역의 상호 발전을 희망하며, 이를 위해 대구시 등과 협조하여



문제해결에 적극 노력 하겠음.

문 도내 결핵 환자 수에 대해 결핵관리 예산 증가와 빈비례한 결핵

환자수의 증가에 대한 견해

답 2010년에 수립한 '결핵퇴치 2020 계획'의 내실화 및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지원으로 검진 및 감염자 치료를 향상이 요구됨.

올해부터 시행할 국가결핵관리종합 5개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한 연차적 종합대책 마련, 환자 감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음. ☞

귀어인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필요

김희원 의원 (칠곡2, 무소속)

문 귀어인에 대한 체계적인 권리를 위해 귀어인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함.

답 귀어인 현황으로 귀농에 비해 과도한 초기 투자자금과 어업기술 부족, 위험한 조업환경 등으로 최근 3년간 귀어인 4명으로 저조함.

경북도 어업기술센터에서 귀어 창업지원과 주택마련 자금 지원, 창업교육은 어업기술센터와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실습중심 현장교육 실시 하겠음.

귀어 활성화 방안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 확대 등 귀어인들이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 귀어인 지원을 체계화 할 수 있는 「귀어인 지원 조례」 제정 검토 하겠음.



문 칠곡보 주변 지역 저지대 추가배수장 설치, 관리수위를 조절 및 배수장 유입구 거 확장 건의

답 칠곡보 관리수위(25.5m)를 2m 낮추는 건의, 칠곡보 관리기관인 부산지방구도관리청장에게 영농기인 3월~11월에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수위를 조절토록 협의 하겠음.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수장 유입구 거 확장, 배수장의 원활한 우수의 유입을 위하여 우수지 준설, 지장물 제거, 유입 구 거 확장 등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을 통하여 우수의 유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낙동강 친수공간 관리비 국비확보

박테환 의원 (교육5)

문 친수공간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국비확보 대책 및 국비확보 차질로 친수공간 방치에 따른 민원제기시 대책

답 2012년 2월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대정부공동건의를 통해 2012년 국비 124억원을 확보하여 낙동강 주변 10개 시·군에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130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

친수공간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2012년 5월 대구경북연구원에 '더불어 낙동강 그랜드 플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3월말 용역이 완료되면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신규사업에도 국비가



지원 되도록 노력 하겠음.

문 유사회발 유유통 근절을 위한 조치 및 대구광역시와 공조한

수시단속 등 대책

답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계획으로 시군, 경찰, 석유관리원, 한국환경공단 등과 상시협조방안을 마련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음.

대구광역시와 협의를 통해 합동단속 등 공동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는 한편 단속일정 조율로 연계단속도 추진할 계획임.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개원

고우현 의원 (문경2, 새누리)

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준비·지원사항과 예산부담 계획

답 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부담 계획으로 최초 소요예산은 538억원이며, 이는 대회 유치 신청시 추정액임.

조직위에서 '대회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여 총 소요예산을, 기재부에서 KDI에 의뢰하여 '간이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시설부분 예산을 재검토 중에 있음. 금년 6월 경 용역이 마무리되면 최종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함.

본 대회는 국방부가 주관하는 국가



차원의 구제행사 이므로 운영비는 전액 국비부담하고, 시설비는 대회 개최 후 관리주체 등을 감안하여 지방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도청이전과 사회복지예산 증가 추세 등 당면 현안사업을 두고 대규모 예산 투입은 우리 도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문경시를 포함한 시군에서도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큰 부담임.

총 예산이 확정되면 조직위, 문경시, 관계 중앙부처, 국회특위 등과 협조하여 대회지원법 개정 등을 통한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음. ☞

신정부 지방분권 추진의지 부족에 대한 대처방안

김명호 의원 (안동2, 새누리)

문 새정부가 희망의 새시대를 열고자 한다면 2013년을 분권형 개헌의 해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 2012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취임하면서, 영유아 보육예산 지원과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한 보전 약속,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과제 및 7대 지방공약사업 건의 하겠음.

지방분권을 위한 실천과제로 지방분권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기 시도의 뜻을 모아 추진, 분권형 개헌에 대해 17개 시도 및 학계, 민간단체 등과 협의 실천방안 마련, 도의회 차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지원 협조 하겠음.



문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각종 기반시설과 정주여건이 미흡하여 2014년 6월 도청이전 목표의 재검토가 필요

답 앞으로 신도시 기반시설 및 정주여건 조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우려 나가는 한편, 2014년 6월 제도에 얽매어 있는 각종 사업이 부실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도청이전은 신청사 준공과 각종 기반시설 및 정주여건 마련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전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

지진해일과 방사능 누출시 대피소 건립

황이주 의원 (울진2, 새누리)

문 지진해일과 방사능 누출에도 보호 받을 수 있는 대피소 건립

답 주민보호를 위한 주민보호불자 확보에서 울진군은 주민보호불자 1,100세트, 이동형감시기 1대, 경주시는 주민보호불자 10,000세트, 방사선 감시차량 1대, 개인선량계 165대를 2012년에 확보함.

친환경대피소 건립은 외국의 사례 등 관련자료 수집과 현지답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검토는 가능하나 40여 개소에 달하는 친환경대피소 건립은 과도한 예산 수반으로 현재로서는 어려우며 장기적으로 추진 검토 하겠음.



문 도립대학교의 도비 의존도, 취업률 저조 등 대학운영 전반, 특수공공분야 등 유망학과 신설과 우수학생유치 방안

답 교원확보 및 교수 전공 불일치 문제 등 7개 도립대학 중 전임교원 확보율은 59.2%로 전국도립대 중 가장 낮고, 현재 교원 평균연령은 48.5세로 현장경험을 갖춘 상태임.

교원의 증원은 행안부 승인사항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규정에 적합한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를 위촉 운영함. ☞



İSTANBUL-GYEONGJU
DÜNYA KÜLTÜR EXPO 2013
이stanbul-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경상북도는 2013년 9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경주세계 문화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 행사명 :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 기 간 : 2013. 8.31 ~ 9.22 (23일간)

• 장 소 : 터키 이스탄불시까지 일원

• 주 제 : "길, 만남 그리고 동행"

• 행사 프로그램(9개 분야 30여개 프로그램)

공 연 _ 한터 전통문화공연·오케스트라합동공연

전 시 _ 한국문화관, 예술교류전

영상·체험 _ 영화축제, 한터 전통문화체험

특별 행사 _ K-POP, 세계민속공연축제 등

